

2020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구로구, 서울시 자치구 유일 '최우수상'

고용노동부 각종 평가서 11년 연속 수상 '대기록' 영예
취업활동 공간 '청년이룸' 과 'G밸리 고용환경' 호평
1만3,752개 일자리 창출... '해고 없는 도시' 선언 눈길



구로구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지난해에 이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구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각종 일자리 평가에서 11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다. (사진은 이성구청장(오른쪽)이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으로부터 상장과 트로피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구로구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구로구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각종 일자리 평가에서 11년 연속 수상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다. 2010년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공동 주관 지역일자리 정책 브랜드사업 부문 우수상, 종합대책 부문 장려상을 시작으로 2011년 지역브랜드 일자리사업 전국 경진대회 우수상, 2012년 전국 일자리 창출 종합평가 최우수상, 2013년 전국 일자리창출 종합평가 우수,

2014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평가 우수,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경진대회 사회적경제 부문 최우수, 2016년과 2017년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특별상과 우수상, 2018년 목표공시제 부문 특별상,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광역시 17개, 기초 226개)를 인구, 근로자수, 자치단체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7개 평가군으로 분류해 평가를 실시했다. 일자리 창출 계획·집행·성과 등 3개 지표에 대해 1차 서면심사, 2차 화상면접심사로 나눠 진행했으며, '공시제'와 '우수사업' 2개 부문에서 수상 자치단체들을 선정했다.

구로구는 서울시 대부분 자치구가 속한 '비'군에서 공시제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지난 9월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2면으로 계속> <채홍길 기자>

2020 '책 축제' 비대면 온라인 개최

17일 온라인 북콘서트, 가족독서 골든벨 등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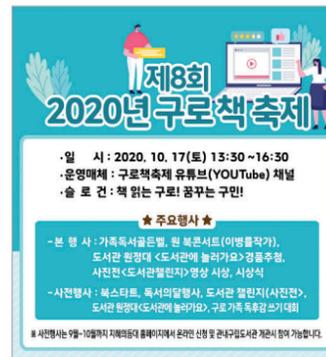
구로구가 '책 축제'를 개최한다. 구는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책 축제'를 마련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8회째를 맞이한 '책 축제'는 도서관화 확산을 위해 2013년 구로구가 시작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진행한다. 책을 통해 꿈과 희망을 펼쳐 나가길 바라는 의미에서 '책 읽는 구로! 꿈꾸는 구민!'을 슬로건으로 정했다.

축제는 17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 '북 콘서트'로 시작한다. 산문집 '혼자가 혼자에게'의 저자 이병률 작가가 책 읽는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강연은 유튜브 '구로 책 축제' 채널을 통해 송출된다.

오후 2시에는 개막식이 열린다. 이성구청장의 개회선언과 축하인사 영상이 방송된다.

이어 독서퀴즈대회 '가족 독서 골든벨'이 진행된다. 초등학교와 학부모가 한 팀을 이뤄 5권의 선정 도서를 읽고 관련 문제를 서바이벌 형식으로 풀어나간다. 총 40팀이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하며, 참가자 외에도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우수한 성적을 거둔 6팀에는 메달과 도서상품권이 지급된다.



본 축제에 앞서 다양한 사전행사도 진행됐다.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도서관 원정대'를 10일까지 운영한다. 관내 구립도서관 15개소 중 3곳 이상을 방문해 비대면 스마트 인증과 미션을 수행하면 된다. 구로구민 또는 구로구 통합도서관 '지혜의 등대' 회원이면 누구나 '구로구 스마트 관광지도' 사이트를 이용해 참여할 수 있다. 미션을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경품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축제는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가족 독서 골든벨, 가족 독후감대회, 책 읽는 사진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과 도서관 원정대 참여자 경품 추첨이 열린다.

행사 당일 유튜브를 통해 책 축제를 관람한 주민을 대상으로 100명을 뽑아 경품도 지급한다.

<김유권 기자>

Daum 서울오늘신문 서울오늘신문을 검색하시면 많은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청년 취업 고민! 서울시 광역일자리카페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참여대상 : 청년 구직자

운영 프로그램

- 진로상담 : MBTI 성격유형 검사연계 진로상담, 1:1 전문 진로상담
- 직무교육 : 기초 직무역량 교육, 데이터마케터 등 직군별 실무교육
- 입사시험 기출풀이 : 최신 기출유형과 실전문제풀이
- 멘토링 특강 : 분야별 현직자 멘토링 및 취업스터디, 신직업 특강 등

운영장소 : 청년이룸 (천왕역 지하1층 4번출구방면)

신청방법 : 청년이룸 홈페이지(www.youthroom.kr) 개별 신청

문의사항 : 청년이룸 운영사무실(☎070-4913-4137)

2020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수상

〈1면에서 계속〉

구로구는 일자리 정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10년 전담 부서인 일자리지원과를 신설했다. 2017년 7월에는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일자리지원과에 청년지원팀도 새로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각종 채용박람회·해외 수출상담회, 맞춤형 취업교육,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목표치 1만3,300개보다 많은 1만3,752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

이번 평가에서 구로구는 청년 취업활동 공간인 '청년이룸'과 'G밸리 고용환경 및 일자리 생태계 개선사업'으로 호평을 받았다.

'청년이룸'은 구로구가 서울교통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천왕역사 지하 1층에 조성한 일자리 토털플랫폼이다. 4차산업 관련 IT교육, 취업스터디, 기업 연계 활동,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적경제, 창업, 청년 취업 활동을 지원한다.

'G밸리 고용환경 및 일자리 생태계 개선사업'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기업들의 고용환경과 근로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로구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0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지난해에 이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이성구청장과 일자리지원과 관계자들과 수상 축하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구청과 유관 기관들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근로시간 단축 캠페인, 인사 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여 신규 채용을 늘리고 근로자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구는 기업 수요에 따라 연령별·상황별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경력 단절 여성 취업교실, 중장년 대상 경비원, 택시·마을버스 운전기사 양성 과정, 중장년 재취업 토털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청년 취업을 위해 캠퍼스타운 조성, 청년일자리 카페, 구로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뉴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중소기업 체험 등의 사업들도 전개했다.

올해 구로구는 코로나19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하고 고용유지 기업을 지원한다. 대량 실직으로 인해 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고 없는 도시'는 기업이 고용유지를 약속하고 이를 지키면 구청이 고용보험 가입 지원, 점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기업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조희승 일자리지원과장은 "매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11년 연속 수상이라는 큰 결실을 맺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경제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의회 의원·사무국 직원 단체 헌혈 동참



헌혈버스안에서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과 김철수 의원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며 헌혈에 동참하고 있다.

구로구의회(박동웅 의장)에서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구의회 청사 앞에서 박동웅 의장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단체 헌혈활동에 동참했다.

이날 헌혈 행사는 9월 말 추석 연휴 혈액보유량 감소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감염 우려에 단체헌혈 기피로 혈액 수급이 악화됨에 따라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안전채혈 매뉴얼에 따라 헌혈버스의 상시 소독과 환기, 개인위생 강화, 거리두기 등 감염 안전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구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회 청사 앞에 마련된 헌혈 버스

를 찾아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자지만 따뜻한 우리의 마음으로 인한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날 헌혈에 나선 박동웅 의장은 "조건이 맞지 않아 헌혈하지 못하신 의원 분들과 직원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헌혈에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만으로도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모두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면서 "우리 구의원들과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헌혈이 국가적 혈액 수급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힘든 때일수록 구로구의회는 구민들의 삶을 꼼꼼히 살피고 챙겨서 지역사회의 어려움들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채홍길 기자〉

구로구선관위, 구청 등에 '위장전입자 확인 협조' 요청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철)는 오는 2021년 4월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를 앞두고 구로구청 등 관내 행정기관에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예방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추후 선거인명부 작성시 위장전입자가 등재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투표목적의 위장전입은 민의를 왜곡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선거범죄다.

이에 따라 구로구선관위는 전입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에 위장전입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 및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위법행위 발생시 관련 업무처리 담당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

극 단속하고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권 기자〉

'홀몸어르신 이불 빨래 서비스' 구로구, 내년 9월까지 연장

구로구가 '홀몸어르신 이불 빨래 서비스'를 1년간 연장한다.

구는 지난해 9월 어르신들의 위생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구로어르신돌봄센터, 위시광광 셀프빨래방 구로구청점과 홀몸어르신 세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매월 저소득 홀몸어르신 10가구를 선정해 빨래감수거, 세탁,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협약기간이 지난달 만료됨에 따라 구로구와 각 참여기관들은 내년 9월까지 세탁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만수 기자〉

코로나19 주거위기 가구에 긴급임시주택 지원

5가구 선정 임대주택 제공 ... 최대 12개월 거주

구로구가 코로나19 주거위기 가구에 긴급임시주택 지원 사업을 펼친다.

구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임대료 체납, 노숙인 증가 등 주거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거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임시주택을 지원해 촘촘한 주거 안정망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주거 상실 위기에 처한 5가구를 선정해 다가구, 원룸 등의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대상자별 복지 욕구에 맞는 맞춤형 정보와 서비스도 제공해 안정적 주거로의 이동을 돕는다.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인 구로구 민으로 아동이 있는 가구가 우선 대상이다. 입주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1회 연장으로 총 12개월까



구로구가 코로나19 주거위기 가구에 긴급임시주택 지원하기로 했다. 사진 왼쪽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웅 사장, 이성구청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재훈 회장, 홈앤쇼핑 김옥찬 대표이사.

지 거주 가능하다.

구로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4일 구청 강당에서 서울주택도시(SH)공사(사장 김세웅), 홈앤쇼핑(대표이사 김옥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재훈)과 '긴급임시주택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구로구는 주거위기 가구에 임대료·정보·서비스를 지원하고, 서울주택도시(SH)공사는 구로구에 매입 임대주택을 유상으로 제공한다. 홈앤쇼핑은 후원금을 지원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후원금 집행, 긴급임시주택 내 생활 집기 등을 맡는다.

임진경 사회복지과장은 "주거위기 가구들이 안정적으로 주거지를 마련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주간	구로오늘신문	주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02)830-0905 메일: news121@empas.com
홈페이지: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회장: 유희상 주간: 한만수 등록번호: 서울 다-5105 구독/광고문의 010-9096-1144	발행인: 김유권 편집국장: 채홍길	구독료: 월 5,000원·연 50,000원 기사제보: 02)830-0905 계좌번호: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1002-347-553475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벼랑 끝 소상공인 끝없는 불황 “임대료만 건져도 다행”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추석연휴 지나도 이어져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3대 ‘숙제’인 수도권 유행 억제, 추석 연휴 확산 방지, 인플루엔자(독감) 동시 유행 차단을 언급했지만 그보다 먼저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실직자들에 대한 정부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불황이 장기화 되자 소상공인들은 70%에 가까운 매출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생존의 기로에서 속이 탄다는 의견이 다수다. 구로구청 인근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모(62)씨는 “투자금액이 많기 때문에 매장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70%에 가까운 매출이 감소해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도림동에서 전자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 모씨도 “당장 상가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현재”라면서 “IMF 경제위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발 정부가 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 소상공인들 “앞길이 캄캄”

부동산114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서울의 상가 수는 37만321개로 1분기(39만1,499)보다 2만 1,178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을 닫은 상가 중 절반 가량이 음식점(1만40개)이다.

코로나 불황에 유난히 음식점이 많은 이유는 비교적 창업이 쉬운데다 수를 수많은 프랜차이즈의 난립이 요인이다. 음식점을 창업할 때는 대부분 장사가 잘 되는 업소를 모방한다. 최소한 잘 되는 업소의 절반만 장사가 되도 은퇴후의 생활은 보장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음식점으로 성공을 한 사람들 거의가 “창업이 가장 어려운 것이 음식점이다. 음식 장사는 일단 나 자신이 음식 만들기를 즐겨해야 하고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주방장을 잘 두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실패의 요인이다. 본인이 주방장을 할 수 있을 때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조언을 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달려들었다가는 6개월을 버티기 힘든 것이 음식점 사라는 것이다. 구로요식업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지



속되는 형국이라 최소 6개월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지속될 것”이라며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소비 위축이 심각한 상태라 회복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절망적인 분석을 했다.

□ 임대료만 내도 잘 되는 장사

음식업이라는 것이 원래 인건비가 30%, 임대료와 세금 등 비용이 30%에 이익금이 40% 구조가 정상적인 상업 형태다. 코로나 사태

□ 코로나19 언제 잡힐지 막막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5일 충북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의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이를 언급하면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 하루 두자리 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산발적 감염이 20%대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또 방역망 통제 범위 밖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다수”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영업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사가 안돼 곳곳에서 폐업하는 음식점이 늘어나는 등 소상공인들과 실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예방법 개정안’ 처리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실질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이뤄져야

록 5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불황에 코로나19도 겹쳐

올해 경기 불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의 신용위험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7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2분기 보증행태서베이’에 따르면 2분기 신용위험동향지수는 64.5로 지난해 동기보다 27.6포인트(p) 높다.

이 지수는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분점과 지점 보증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소상공인을 비롯한 보증이용자의 사고 발생 등 신용위험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 -100에 가까울수록 신용위험이 작아지는 것으로 뜻한다.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이 있었고 외출과 회식 등이 줄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책임자들은 3분기에도 소상공인의 신용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기 대비 다음 분기의 신용위험 전망지수는 올해 2분기 83.9로 전 분기보다 49.3p 급등했다. 영업환경 등 상황이 악화하며 소상공인들의 보증수요는 크게 늘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경기침체로 유동성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가 이어지며 보증수요가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한민수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매출 70% 감소 “폐업 속출, IMF 경제위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등 대책 방안 마련 절실

이후 카운터를 보는 주인은 서빙을 보고, 집에서 살림을 하던 주부는 식당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형태로 유지되는 음식점이 많다. 직원도 주방장을 비롯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유지를 한다. 그나마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서 직원들의 인건비와 임대료만 건져도 끝이 없는 불황의 늪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개봉1동 박 모씨는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요리자격증을 비롯해, 은퇴후 준비를 착실하게 했다. 그의 장밋빛 꿈은 올 2월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작년 11월에 퇴직을 해서 올해 1월에 순댓국 프랜차이즈점을 개업했다. 내가 알기로는 음식점을 개업하면 최소 3개월 동안은 ‘개업발’을 받아야 순조롭게 매상이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다. 1월에 ‘개업발’을 받자마자 코로나가 터졌다. 다행히 지금까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저축해 놓은 돈이 있어서 그나마 운영을 해 왔다. 다음 달 부터는 당장 임대료가 문제다. 임대료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이 번쩍번쩍 떠진다”라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의 유행 규모를 더 빠르게 억제해야 하고, 또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예방과 코로나19와의 동시 감염 차단이라는 커다란 숙제이자 고비를 앞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각심을 갖고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우리의 방역과 의료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유행을 통제할 수 있다”며 “일상에서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재차 당부했다.

□ 정부 폐업 지원대책 너무 부족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은 집합금지업종 최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 150만원,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로 한정하여 100만원까지로, 총 290여만명의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박 모씨는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은 이분들이 입은 피해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라며 “연합회는 이에 대한 직접적인 영업손실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에 발의된 ‘감염병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매출을 4억원으로 따진다 해도 보통 부부가 함께 장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1인당 소득은 2,500여만원에 지나지 않고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소상공인 연합회도 연매출 4억원 규정도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크게 상향해서 실질적인 지급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지원 금액 또한 대폭 상향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씨는 무엇보다 이번 대책에 폐업 보상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8월 16일 이후에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만 50만 원 준다는 것인데, 폐업해서 생계가 경각에 달려있는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라며 “소상공인들도 엄연히 직장인들인데, 일반 직장인들과 너무 차별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코로나 19 사태로 올해 초부터 장사가 안돼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수만을 헤아리는데 이들에게는 한 푼도 안준다는 것이 과연 말이나 되는 것인가?”라고 가슴을 쳤다. 당장 올해부터 폐업한 소상공인부터라도 지원금을 최소한 두 달 이상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내 최대 병원설비기업 G밸리 소재 (주)하나지엔씨 음압병실 설계·기기제작·시공·유지보수 ‘원스톱 처리’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음압 치료 병동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관내 구로3동 G밸리소재 (주)하나 지엔씨(HANA G&C CO.LTD 대표 박동일)는 국내 병원설비 전문기업이다.

국내 음압병실분야 최다 실적을 보유한 하나지엔씨는 국내·외 기술기준 개발, 설계, 기기제작, 시공, T&C(Test & Commissioning), 유지보수를 일괄로 처리할 수 있는 의료복지시설, 장치 전문기업이다. 음압병실은 일반병실과 다르게 국가 음압 격리병동 시설기준에 따라 설계, 시공, 유지관리까지 시행해야 한다. 하나지엔씨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1,000병상급 30곳 이상의 다양한 병원 의료원, 보건소 등에 납품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강점이다.

인하대 병원 음압격리병동을 시공한 것을 비롯해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경북과학기술원(DGIST) △판교SK R&D 센터 △국립암센터 △부산대학교어린이병원 △건국대병원 등을 시공한 하나지엔씨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형 공기차압 장치를 이용한 세균오염 방지시스템 △무균병실용 무균수 공급장치 △바이오클린룸 세균오염 방지시스템 △식식 공기청정장치 등 국내외 바이오메디칼 관련 특허도 20여건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인증(CE) 규격을 획득해 해외에 국산 기자재 등을 설계, 납품, 시공, 운영까지 전공정을 제공하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했다.



(주)하나지엔씨 박동일 대표.



박동일 대표가 지난 4월 5천만원 상당의 이동형 음압부스·음압기를 서울시·보건소에 기증했다.



(주)하나지엔씨가 제작 설치한 음압치료병동.

세계 최초 이동식 음압기 개발

특히 최근에는 이동형 음압부스 및 음압기, 의료진 감염예방용 클린패널, 오염공기 살균기 등을 개발해 전국 의료시설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있다.

선진국 문헌과 기술 벤치마킹

박동일 대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중동 분야 한창이던 1980년대 초반 대

바탕으로 선진국보다 우수한 시스템 구축과 ICT기술을 바탕으로 기술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 지정 음압치료병동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안전 최우선(의료진,

1000병실 대형병원·의료원·보건소 30곳에 납품 음압부스·이동식 음압기, 오염공기 살균기 등 개발 박동일 대표, 이동식 음압설비 10대 서울시 기증

외국의 관련기술을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꼭 필요한 부분만 수입 대체해 국제기준과 국내 기준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을 확보, 수출도 병행하고 있다.

하나지엔씨가 개발한 이동형 음압부스·음압기는 실내·외 어느 장소에서든 감염병 환자를 신속하게 격리, 치료할 수 있는 음압실을 구성해 환자와 의료진을 완벽하게 분리한다. 환자의 바이러스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고 바이러스가 외부로 전파되지 않도록 배기공기를 1.2차 처리할 수

림산업 기계부에 입사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건설현장을 누볐으며 중견기업인 신성이엔지에서 근무하다 하나지엔씨로 1994년 독립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에너지 환경대학원 기계설비공학을 졸업하고 공학박사 학위를 땀다.

창업 초기에는 국내 기자재와 기술력이 부족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각종 문헌과 기술을 기초로 해외에서 다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산화에 초점을 맞춰 운영해 왔다. 현재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IT기술 강국인 것을

환자, 관리자의 안전) △에너지절감(전외기, 전배기 대응) △시설 운영(안전과 에너지, 하자시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 등을 최우선 과제로 시공했다.

수배관 사업에도 진출

박동일 대표는 우연한 기회에 대한설비공학회 공조분과에서 하이드로닉(hydronic)에 대한 기술을 접하게 됐다. 현재 국내 설비설계 기술 중 가장 취약 부분이다.

현재 협력하고 있는 회사는 영국의 IMI이다. IMI 모태는 스웨덴 TA라고 불리던 회사이며 현재는

영국의 IMI로 합병돼 IMI-TA로 알려져 있다. 밸런싱 밸브, 압력 독립형 밸런싱 컨트롤밸브(복합밸브)를 최초로 제조했으며 세계 최고층 건물인 두바이타워 등 20만 개 이상의 건물에 적용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69개국에 판매망을 갖고 있다.

국내에는 토탈 수배관시스템의 경우 열원장비인 냉동기, 보일러, 열운송 장비인 펌프, 열원 사용기기인 공조기, 팬코일 유니트, 그리고 이 모든 장비를 제어하는 자동제어로 나뉘어 공급, 설치, 운영하고 있다.

박 대표는 국내 수배관시스템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기술평가원에 ‘건물용 냉난방배관, 순환펌프 및 유량조절밸브 선정을 위한 수배관 해석 프로그램’을 제안했으며 한국의 HVAC 시장 변화와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지엔씨 주도의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동식음압기 서울시 10대 기증

박동일 대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해 일어난 재난 상황에서 대응제품을 발빠르게 개발해 5천만원 상당의 감염병 대응 위로기기를 서울시 및 지자체 보건소에 기증했다.

이동형 음압부스·음압기를 서울시에 10대 기증했다. 금천구 보건소에도 1대를 기부, 의료진 감염예방용 클린 패널을 과주시보건소에 기부하며 기계 설비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유권 기자)

www.songlimga.com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직 그리고 멋
진심이라는 빛과 물을 줄 때 마음은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다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뿌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풍미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정통의 맛을 담은 宗食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

‘구로 G페스티벌 2020’ 성공리 막 내려

‘코로나19 시대’ 주민 축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코로나시대 주민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구로 G페스티벌 2020’이 한 달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사진은 폐막식의 이성 구청장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9월 한달 유튜브 등 온라인 진행...150여개 영상 송출, 조회 2만회 돌파 영상·사진 공모전, 랜선 노래자랑,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등 다양

코로나 시대 주민 축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구로 G페스티벌 2020’이 한 달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올해 ‘G페스티벌’은 코로나19에 지친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졌다. 유튜브 ‘구로G페스티벌2020’ 채널을 통해 150개 이상의 영상이 송출됐고, 누적 조회수 2만회를 돌파했다.

먼저 음식을 통해 아시아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맛있는 아시아’가 4회에 걸쳐 방송됐다. 이연복 셰프, 방승인 럭키가 주민 공모로 선정된 레시피에 따라 아시아 각국의 전통음식을 만들며 이야기를 나눴다.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온라인 ‘집으로 배달 콘서트’도 열렸다. 크라이넛, 동춘서커스, 정단 등이 출연해 장장 8

시간 동안 실시간 라이브 공연을 펼쳤다.

이외에도 인기 팟캐스트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허진모, 장웅씨가 진행한 ‘삼국지로 중국을 만나다’ 강연과 아시아 7개국의 AR 영상을 체험할 수 있는 ‘만나라 이웃나라’ 심승현 작가의 애니메이션 ‘과페포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민들을 찾아갔다.

온라인으로 치러진 이번 ‘G페스티벌’은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한 양방향 소통 축제로 더욱 관심을 모았다.

코로나19 극복을 주제로 진행된 ‘나도 유튜브다(나튜브)’ 공모에는 주민들이 직접 제작, 촬영한 영상과 사진 150여편이 접수됐다. 거리두기 속 슬기로운 일상생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노력 등을 담은 응모작들이 눈길을 끌었다. 지역케이블방송을 통해 생방송된 랜선 노래자랑 ‘청춘스튜디오’에는 80대 어르신이 참여해 숨은 실력을 선보이기도 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영상도 공개됐다. 동별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타악퍼포먼스, 사물놀이, 경기민요, 줌바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우리나라 전통 민요창극에 코로나19 극복 메시지를 담아 공연한 오프2동 팀이 1등을 차지했다.

축제는 27일 오후 3시 온라인 생중계된 폐막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폐막식은 시상식과 신유, 마이진의 축하공연으로 꾸며졌다. 유튜브 ‘구로G페스티벌 2020’ 공식 채널에 게시된 영상들은 축제기간 종료 후에도 감상할 수 있다.

이광희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G페스티벌이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속에 성공리에 막을 내리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이광희 문화관광과장은 “이번 G페스티벌이 주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속에 성공리에 막을 내리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유희상의 열린 칼럼



우리나라의 명절은 모두 음력 기준이다. 추석도 음력으로 8월 15일 까닭에 해마다 곡식이 익어가는 수준이 다르다. 빠를 때는 감나무며 대추가 채 익기도 전에 추석이 온다. 윤달이 섞인 해는 10월 말에 추석이 오기도 한다. 추석이 일찍오든 늦게 오든 추석을 맞이하는 심정은 같다. 요즘 같으면 먹을 것이 풍성

네 어른들 집을 다니며 세배는 드리지 않지만 정성 들여 장만한 음식을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다. 중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같은 자리에서 음식을 먹는 점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를

한가위만 같아라 ㉞

해서 특별하게 추석이라고 해서 많은 음식을 차례상에 올려 놓지 않는다. 예전에는 몇날 송편을 쌀 한 말 정도 하는 집이 흔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정성을 들여 빚은 송편은 그냥 음식에 두면 곰팡이가 낀다. 햇볕에 바짝 말려서 추석 뒤에 오는 윤동회 날 싸 가지고 가거나, 가을 소풍때 가져가기도 한다. 먹을 것이 귀하던 시절에 추석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조상께 제를 올리는 축제의 날이기도 하지만, 여름 내내 농사를 짓느라 축난 몸을 보신하는 날이기도 하다. 설날처럼 동

두지 않는다. 우리 민족은 지금도 음식점에서 모르는 사람과 동석하는 것을 몹시 꺼려 한다. 점심을 먹을 때가 돼도, 빈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음식을 같은 자리에 앉아서 먹는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물며 집에서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나누어 줄 때는 비록 동거동락은 같이 하지는 않을 지라도 정서적으로는 교류를 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본지 회장>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신도림생활체육관

온수복지관에 마스크·목걸이 1천개씩 전달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환) 신도림생활체육관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지난 28일 온수어르신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한 일회용마스크 1,000매, 마스크 목걸이 1,000개를 전달했다.



유영환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지난 28일 온수어르신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한 일회용마스크 1,000매, 마스크 목걸이 1,000개를 전달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 요즘, 반복되는 착용 과정에서 분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마스크 분실 방지용 목걸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신도림생활체육관에서는 직원들의 참여로 마스크 목걸이 1,000개를 직접 제작하였고, 일회용 마스크 또한 마련하여 온수어르신복지관에 전달했다.

공단 유영환이사장은 “임직원이 직접 제작에 참여하여 생산비용 절감과 동시에 마스크 분실의 사회적비용 감소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한가위가 다가오며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신 어르신들께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고척동 (주)이글에듀, 경기사랑의열매에 성금 2천600만원 전달

변화영 대표 “생활 어려운 아이들 지원사업에 써달라” 2018년부터 1억2천만원 기탁,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

(주)이글에듀(대표 변화영)는 지난 9월 24일 고척동 소재 솔렉스 어학원에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경기사랑의열매)에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의 지원사업’을 위한 성금 2천600여만 원을 전달했다.

(주)이글에듀는 지난 2018년부터 경기사랑의열매를 통해 ‘시니어 생활영어단어지도사 양성 프로그램 및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의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그 동안 1억 2천여만 원을 기탁하는 등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경기사랑의열매’를 통해 분당노인종합사회

복지관과 안양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영어지원 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변화영 (주)이글에듀 대표는 “저희도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아 어려운 상황이지만 6년간 지속해온 기부금 전달을 중단하는 경우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이웃들의 사정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판단 하에 사회공헌활동의 지속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화영 대표는 “앞으로도 노인 일자리 창출과 아동 교육 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



사진 왼쪽부터 최은숙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최민정 솔렉스어학원 원장, 변 대표의 자녀 변예광 군, 변예슬 양, 변화영 이글에듀 대표.

기 위해 시니어 생활영어단어지도사 양성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다 많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도 기업들의 사회공헌이 간절히 요구되는 시기에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주)이글에듀의 따스한 나눔은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채홍길 기자>



정백리 차지철

누가 차지철에게 들은 던지랴!

김유권 지음
문학/사륙판 양장 / 325쪽/값12,000원 / 발행일 2013년 3월 5일

코로나에도 '구로의 추석'은 '이웃사랑'으로 빛났다

쌀·마스크·생필품·음식 전달, 성금기부 등 온정의 손길 이어져

코로나19 속에서도 이웃과 함께해 더 풍성한 구로구의 추석이였다.

추석을 앞둔 지난달 24일 구청 현관에서는 (사)함께하는사랑밭(대표 박국양) 후원으로 '사랑의 백미 전달식'이 개최됐다. 기부된 쌀(10kg) 300포는 관내 복지시설,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전달됐다.

14일에는 (주)에스제이팜(대표 이완근)이 홀몸어르신을 위해 KF-AD 마스크 2만개를 기부했다.

동별로도 나눔 행렬이 이어졌다. 지난달 28일 수궁동에서는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장민호)가 어르신 50명에게 나물, 전, 불고기 등으로 구성된 한상나눔 바구니를 선물했다.

동자원봉사협력단(단장 김덕용)은 어르신 30가구에 추석 선물세트를 나눠드렸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서울전과관리소는 백미 30포, 동도건설은 60포, 해룡암은 20포를 기증했다.

구로2동자원봉사협력단(단장 김인숙)은 25일 저소득 주민 140명에게 쌀 10kg씩을 나눠줬다. 동구로새마을금고(이사장 이계명)와 안동학 동구로새마을금고 부이사장이 후원했다.

같은 날 개봉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신만철)도 명절음식을 마련해 저소득 주민 20명에게



코로나19 속에서도 이웃과 함께해 더 풍성한 구로구의 추석이였다. (주)에스제이팜이 홀몸어르신을 위해 KF-AD 마스크 2만개를 기부했다.

전했다. 24일 오류동장료교회(담임목사 이형백)는 오류1동주민센터로 6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개봉1동에서도 광명감리교회(담임목사 정태민)가 저소득 주민들을 위해 쌀(10kg) 60포를 기증했다.

또 22, 23일 고척2동에서는 추석맞이 행사가 열렸다.

고척2동새마을금고(이사장 석용식)는 22일 취약계층 20가구를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했다. 고척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재숙)는 23일 홀몸어르신 40명에게 선물꾸러미를 전했다.

오류1동에서도 나눔 행사가 진행됐다.

22일 오류1동주민센터에서는 동 자원봉사협력단(단장 이종천)이 송편, 김, 스텝 등으로 추석맞이

사랑꾸러미를 만들어 저소득층 30가구에 배부했다. 23일 동도건설(주)(대표 황병구)은 저소득층을 위해 쌀(10kg) 60포를 지원했다.

보건소를 향한 응원도 계속됐다. 지난달 18일 우리아이들병원(이사장 정성관)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 비타민영양제 300개를 후원했다.

이 밖에도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가 샌드위치 50개 커피 60개와 과일 5박스, 서울에너지공사가 컵밥 33박스, 더세인트요양병원이 피자 10판, 베네피트플러스가 소독제 50개, 현대열린어린이집이 햄버거·콜라 40개, 서울시보건간호사회가 죽 126개와 젤리 200봉지, 익명의 주민이 캔커피 60개, 메디피스가 쿨조끼·티셔츠·음료, 대한적십자사가 음료 100개와 생수 160개를 보냈다.

〈채홍길 기자〉

홀몸어르신 대상 '스마트 토이로봇' 확대 보급

로봇 인형 통해 교감활동·치매예방·맞춤형 알람 등

올해 100가구에 추가 배부

구로구가 홀몸어르신들을 위해 '스마트 토이로봇'을 확대 보급한다.

구 관계자는 "홀몸어르신의 정서·생활돌봄 지원을 위해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토이로봇'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올해는 대상자를 확대해 관내 홀몸어르신 100가구를 대상으로 토이로봇을 추가 배부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토이로봇'은 말하는 로봇 인형으로 어르신들의 정서 교감, 생활·건강관리, 안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인형 내부에 반응형 센서가 내장돼 있어 머리 쓰다듬기, 손잡기 등의 교감 활동이 가능하다. 치매예방을 위한 퀴즈, 체조, 명상 등의 콘텐츠도 이용할 수 있다. 보호자가 인형과 연동된 모바일 앱을 통해 알람을 설정하면 기상, 식사, 약 복용 시간 등을 음성으로 알려준다. 일정시간 어르신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알림메시지를 전송하는 기능도 있다.

지난해 구로구는 관내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중 저소득층, 치매환자, 우울증 진단자 등 225명을 선정해 토이로봇을 지원했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구로구가 홀몸어르신들을 위해 '스마트 토이로봇'을 확대 보급한다. 올해는 대상자를 확대해 100가구를 대상으로 토이로봇을 추가 배부키로 했다.

를 실시한 결과, 96.7%가 토이로봇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또한 외로움, 우울감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음을 보여줬다.

이에 구로구는 올해 스마트 토이로봇 100대를 추가로 보급키로 하고, 지난달까지 신규 이용자를 모집했다. 인형은 내달 중 어르신들에게 전달 완료할 예정이다.

관내 어르신돌봄센터, 복지관과 협력해 사용자 모니터링 강화, 피드백 반영 등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운영체제도 구축한다. 〈김유권 기자〉

'걷기 구로 짝꿍' 챌린지 함께해요

두 차례로 10월 1차, 11월 2차 진행 ... 스마트폰 앱 활용

'우수 짝꿍' 선정 건강꾸러미, 추첨 통해 커피쿠폰도 제공

구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활동이 줄어든 주민들을 위해 '걷기 구로 짝꿍' 챌린지를 펼친다.(사진)

구는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친 주민들의 건강과 활력 증진을 위해 '걷기 구로 짝꿍' 챌린지를 마련해 핸드폰 앱을 통한 언택트 프로젝트로 진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걷기 구로 짝꿍' 챌린지는 두 차례로 나눠 1차는 이달, 2차는 내달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구로구민은 G벨리보건지소에 전화(02-860-8174)로 신청 하면 된다. 신청 후 문자로 전송되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고, 워크온(WalkOn) 앱을 다운받아 '걷기 구로 짝꿍'에 가입하면 걷기양이 자동 측정된다. 이름을

설정할 때는 '홍길동(춘향이)/춘향이(홍길동)' 형식으로 짝꿍의 이름을 함께 적는다.

참여자는 걷기 관한 장소를 자유롭게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 이벤트에 참여하면 된다. 사진 촬영 시에도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구로구는 회차별로 챌린지가 마무리되면 관내 멋진 곳에서 짝꿍과 함께 찍은 사진에 '베스트 포토 짝꿍' 견게 된 동기·좋았던 집·후기 등 우수 사연에 '베스트 걷기사연 짝꿍' 짝꿍과 합산한 나이가 가장 많은 커플에게 '베스트 최고참 짝꿍' 걸음 수가 가장 많은 커플에게 '베스트 장거리걷기 짝꿍' 등 '우수 짝꿍'을 선정한다. 참여한 모든 짝꿍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해 '걷기구로 짝꿍'

G벨리보건지소 언택트 신체활동 프로그램

걷기구로짝꿍

비대면 걷기 챌린지에 참여하세요!

참여대상:	걷기를 사랑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기간:	(1차) 10월 1일 - 10월 28일 (2차) 11월 1일 - 11월 28일
참여장소:	에디슨(집안, 안양천, 구로, 올레길 등)
참여방법:	1. 전화접수 2. 참가신청서작성 3. 워크온 가입 4. 걷기구로짝꿍 검색 후, 가입
이벤트:	이벤트 내용에 따라 커피를 선정하여 경품을 제공 (워크온-계좌입금 충전)
결과발표:	(1차) 11월 5일(목) (2차) 12월 3일(목)
문의:	02-860-8174

G벨리보건지소

'베스트 럭키 짝꿍'도 뽑는다.

구로구는 '우수 짝꿍'에게 건강꾸러미(요가링, 라텍스 밴드, 줄없는 줄넘기 등)를 제공하고, '걷기구로 짝꿍' '베스트 럭키 짝꿍'에게는 커피쿠폰을 지급한다.

김영렬 보건행정과장은 "건강도 지키고 경품도 받을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제1회 바다사랑 독후감 경진대회' 개최

11월7일까지 초등생 대상... 12월 시상식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이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교육청, CJ EnM, 위메프, 한국해양재단,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잡월드, W재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도서출판 도훈이 후원하는 '제1회 바다사랑 독후감 경진대회'가 지난 9월 7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번 독후감 경진대회는 우수 해양 도서를 보급하고,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해양안전문화 확산과 해양환경보호 인식개선을 위해 개최됐다.

참여방법은 바다안전 및 바다환경 관련 도서를 읽은 후 느낀점을 200자 원고지에 작성해 해양경찰청 담당자 앞으로 우편 응모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9월 7일 부터 11월 7일 까지로, 책을 좋아하는 초등학생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부문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초등 1~2학년, 3~4학년, 5~6학년 나누어 각 부문별 우수작을 선발한다.

수상자 발표 및 시상식은 2020년 12월 실시될 예정이며 주최기관은 해양경찰청장상을 비롯한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해양재단이사장,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 한국잡월드 이사장,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등 후원 기관장의 표창과 총 6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바다사랑 독후감 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2020 바다사랑 독후감 경진대회 담당자(032-835-2412)로 하면 된다.

〈김유권 기자〉

서울지하철 마스크 미착용 5개월 5만 9천건 신고

지하철내 마스크 관련 직원 폭언·폭행, 승객간 다툼도 22건

13일부터 지하철, 버스 등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지난 5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지난 5개월간 서울시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 접수가 59,1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직원을 폭언 및 폭행한 경우는 12건, 승객 간 다툼 사건도 10건이 보고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마스크 관련 민원을 집계하기 시작한 5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전화, 문자, 지하철앱을 통해 접수된 마스크 미착용 신고는 5월 3,746건, 6월 7,875건, 7월 10,999건, 8월 24,277

건, 9월 1일부터 20일까지 12,221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따로 있지 않아 처벌까지 연결되지는 않았다.

다만,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직원의 착용 요청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지시 준수)에 근거하여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직원의 마스크 착용 요청 불응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8월에 4건, 9월에 4건으로 9월 20일 기준 총 8건이 이뤄졌다. 이들 모두 아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 8월 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지하철, 버스, 항공기, 택시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개정안의 시행 시기인 10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사람의 승차를 제한했지만, 미착용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없어 직접적인 제재가 어려웠다.

박완주 의원은 "10월 13일부터 지하철, 버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에 따른 분쟁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차량 내·외부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유권 기자>

"수험생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세요" 고3 학생에 마스크·손소독 티슈 지원

관내 14개 고교 2,963명 대상 ... 1인당 마스크·티슈 각 10장씩 지급

구로구가 관내 모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마스크와 손소독 티슈를 지원했다.<사진>

구는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 중 확진자가 나올 경우 진단검사, 자가격리, 입원 등으로 인해 본인과 주변 친구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코로나19 예방과 수험생 응원을 위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손소독 티슈를 배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14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963명이다.

구로구는 각 학교로 물품을 전달해 학생 1인당 덴탈마스크와 손소독 티슈를 각 10장씩 지급했다.

구는 앞서 지난 7월에도 관내



모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안·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2만 여장의 덴탈마스크를 지급한 바 있다. 학원과 교습소 507곳에도 마스크 100매, 손소독 티슈 500장씩을 제공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만수 기자>

관내 확진자 추석연휴 이후 8명 늘어... 누적 189명



구로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추석연휴 기간인 지난 9월30일부터 7일 현재 8일간 8명이 추가로 발생, 누적 189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추석 전 구로구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주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구로구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추석연휴 시작한 지난 9월30일부터 10월 7일 현재 8일 사이에 8명이 추가로 발생, 누적 확진자는 모두 189명으로 집계 됐다. 166명이 완치 되었고 23명이 치료중이다.

관내 189번 확진자는 오류1동에 사는 63세 여성이다.

188번 확진자는 구로5동 거주 59세 남성으로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4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5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187번 확진자는 구로2동 거주 65세 남성으로 증상 발현에 따라 3일 관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4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186번 확진자는 구로5동 거주 40세 남성으로 184번 확진자(여, 36세)의 가족이며, 185번 확진자

는 고척1동에 사는 33세 남성으로 동작구 확진자 접촉자로 2일 동작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체검사를 받고 3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편 7일 현재 구로구 관내 누적 확진자는 189명으로 치료중 23명, 완치자 166명이며 자가격리자는 밀접접촉자 79명, 해외입국자 347명 등 모두 426명, 능동감시대상자 0명이다.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구로롤센터 관련 20명, 구로동 A아파트 관련 11명, 중국동포센터 관련 11명, 만민교회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 강서구 개척교회 관련 6명, 부천시 쿠광 관련 5명,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5명, 보성운수 관련 4명, 해외 입국 4명, 타시군구 접촉자 37명, 기타 66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확진자는 7일 현

재 모두 5,443명으로 5,000명을 훌쩍 넘었고 구청별로 보면 ▲관악구가 407명으로 처음으로 400명을 넘어섰고 ▲송파구 341명 ▲사랑제일교회 소재 성북구가 334명 ▲노원구 309명으로 3개구가 300명을 넘어섰다. 또 ▲강서구 287명 ▲강남구 273명 ▲은평구 251명 ▲동작구 244명 ▲도봉구 209명 ▲서초구 200명으로 5개구가 200명을 넘어섰고 이어 ▲영등포구 195명 ▲중랑구 193명 ▲구로구 189명 ▲강동구 187명 ▲양천구 181명 ▲마포구 168명 ▲동대문구 164명 ▲강북구 151명 ▲광진구 133명 ▲서대문구 127명 ▲용산구 127명 ▲성동구 124명으로 12개구가 100명이 넘었다. 이어 ▲금천구 95명 ▲종로구 89명 ▲중구 59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채홍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 '올바른 마스크 쓰기'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지사장 류준식)는 지난 9월 28일 개봉역에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클린공간 만들기 캠페인' 및 '올바른 마스크 쓰기' 홍보를 실시했다.<사진>

건강보험공단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협력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

임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건강함 속 행복함 더 건강한 사회적 가치를 담습니다' 홍보물과 코로나 2차 유행방지 및 향후 주기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마스크 쓰기'를 위한 스티커 및 리플렛을 배부했다. <채홍길 기자>

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가족에 명절음식 전달

서울남부보훈지청(지청장 양홍준)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9월 28일과 29일 양일간 보훈가족 24가구에 명절음식 및 밑반찬을 전달했다.<사진>

이번 명절음식 전달 행사는 저소득 고령 보훈가족 중 코로나19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자녀를 만나기 어렵거나 독거로 인하여 명절에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명절음식을 전달받으신 어르신들은 "추석 연휴동안 식사를 책임져 줄 밑반찬과 추석음식을 받고 감사하다"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김유권 기자>



양홍준 지청장은 "소외되고 힘든 보훈가족이 없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보훈가족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세진 수필가 '왜 사랑이 아름다운지를 말하지 않는가' 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각종 행사나 모임이 취소되는 등 서로 만나기가 수월하지 않은 시기이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도 마음 편하게 고향을 갈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앞으로도 쉽게 극복될 거 같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크다.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시기에 소통을 위한 한 권의 에세이집이 나왔다.

류세진 수필가의 '왜 사랑이 아름다운지를 말하지 않는가'이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그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건 인간의 과한 탐욕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집 모두를 어디쯤인가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더 좋은 것을 찾으려만 그냥 두어야 할 것들을 마구 들추시고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건드렸기



때문이 아닐까. 자연이 우리에게 보낸 경고인지 모른다. 그만하면 됐으니 이제 옆을 좀 돌아보라고. 조금만 더더욱 가라고.

<물질보다는 가슴이 따뜻한 세상이면 좋겠다> 중에서

정든 마을을 떠나며 했던 다짐,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옛 마을로 돌아가게 된 사연. 사계절을 보내고 또 다른 사계절을 받아

들이며 순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의문을 품고 지나온 세월. 아이의 아이가 태어나고 또 그 아이의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얻는 기쁨. 주변 작은 것에서 느끼는 새로운 사랑. 작가의 글을 통하여, 또 그녀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나아가 앞으로 전개될 우리의 삶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은 다르면서도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왜 우리는 사랑이 아름답다고 말하지 못하고 살아왔을까?

뒤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아름답고 젊지 않았던가. 그러나 지금의 내 모습도 가까운 미래에서 혹은 더 먼 미래에서 바라본다면 가장 아름답고 젊은 순간이다.

이젠 늦었다고 말하지 말고 가장 좋은 때라고 이야기 하자. 지금 주어진 내 환경과 내 주변으로 모여드는 많은 것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자. <김유권 기자>

초대시

똥구는 몽돌은 알고 있다

시인 권달웅

해변에 자르르 똥구는 몽돌 소리

성난 파도에 곤두박질치고 똥구는 몽돌은 안다. 길고긴 날 돌이 돌과 부딪쳐 모지라진 몽돌은 세상살이 고난이라는 걸 안다. 깨어져 울퉁불퉁 모난 돌이 동글동글한 몽돌이 되어 알락달락한 빛깔을 품고, 해와 달이 되고, 물새가 된다. 내일이 아무리 캄캄해도 오늘 하루 해는 수평선에서 출렁거린다. 오늘이 어제와 똑같이 부패해도 해는 떠오른다. 밀려가고 밀려오는 파도를 따라 자르르르 똥구는 몽돌은이 세상 소리를 다 안다. 광장에 모인 군중들이 펼쳐든 플래카드처럼 차도는 스크럼을 짜고 몰려와 하얗게 부서진다. 새벽은 아직 멀었지만 반질반질한 몽돌이 여는 여명 소리를 듣고 있는가. 파도는 찢기면서 몸부림치고, 그 동글동글한 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은 짐작해서 다 안다.

찢기고 부서지면서
살아나는 파도여,
(‘꿈꾸는 물’ 시집 중에서)

- 시인 권달웅
- 월간 심상으로 등단.
- 시집: '해바라기 환상' '사슴불' '비림부는 날' '지상의 한사람' '내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다' '꿈꾸는 물' 외 다수 있음.
- 평문문학상, 평문학상, 최계락문학상, 신석초문학상 수상.



우리구 주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있으신가요?

그럼, 구로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안해주세요.
문의 (위원장 010-5251-8156, 총무: 010-3362-8353)



최기현 위원장

- *위원장: 최기현
- *부위원장: 임영택
- *총무: 김의순
- *생활복지분과위원장: 심철
- *도시관리 분과위원장: 이종구
- *안전건설 분과위원장: 윤양원
- *일반행정 분과위원장: 김현수
- *보건 분과위원장: 유선희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정신건강의 날 기념' 마음치유 특강 마련

12일까지 선착순 접수 ... 13일 유튜브 생중계

구로구가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해 마음치유 온라인 특강을 마련한다.

구는 서울시50플러스, 구로구청 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과 우울감이 심해지는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준비했다.

오는 13일 아주대학교 김경일 심리학 교수가 강사로 나서 '동기를 알면 행복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불안·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

에 대한 이해, 행복한 삶의 원리, 만족감을 찾는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강연은 오후 2시부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된다. 수강을 원하는 이는 서울시50플러스 홈페이지(<https://50plus.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12일까지 선착순 300명을 접수 받는다. 강의료는 무료다.

문의) 구로구청신건강복지센터 861-2284. <채홍길 기자>

구로구청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하는 무료 특강

김경일 교수의 '동기를 알면 행복이 보인다'

바쁘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때로는 삶의 방향을 잠시 못매 마음의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기념하여 진행되는 이 강연은 생리의 법칙을 설명하고 동기·의지의 성취를 탐구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자혜로운 삶과 행복'을 얻는 원리를 알아봅니다.

날짜	10.13	시간	화 14:00-15:30
회차	1회	인원	선착순 300명
참가비	무료	유튜브 서울시50플러스센터	유튜브 라이브 강의

수강신청은 10월 10일 오후 2시부터 구로구청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거창하거나 부담스럽지 않게,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더 쉽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작은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듯이,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희망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과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경제적 어려운 이웃을 지원합니다.

지원문의 : 구로희망복지재단 02)867-1695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102-5774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